



심학·이기선

“허욕은 악습 동반... 직분에 충실하자”

군인이 강도질을 하였다. 박주의 사건이다. 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수호하는 충군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강도를 하였다니 말이 되는가. 그것도 유희비의 빛에 겹쳐 먹고 강도행위를 하였다.

정근이다. 어떤것이 오관수호하는 것인가. 정박에 의해서 재산을 모아서 권력층, 도둑, 물불의 화난을 당하지 않고, 또한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음이 수호라고 한다.

고 기쁨이 잘되어야 기계가 움직이게 된다. 우리의 직업도 제마음에 조여진 것으로 기쁨이 되어야 한다. 오관은 번뇌를 자아내는 발원지다. 사물에 대한 욕심이 오관에서 발동한다. 감각기관은 사물을 환각이나 유희로 이끌려는 진드기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형태의 작용을 한다. 조용히 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번뇌의 욕망에 사로잡혀 허욕을 부리고 있다. 허욕은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악습을 동반한다.

어떤것이 착한 벗을 만나는 것인가. 사람이 벗을 가까이 할 때 성품이 현량한 사람만 만나야 하며 간음, 도둑

행복추구의 방법

우리는 오관의 진드기를 골라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욕망의 용이 올라온 물을 부스럼덩어리로 만든다. 오관을 다스리는 고약을 마음 깊이 붙여두고 번뇌의 고풍과 증기의 씨눈을 뽑아버려야 한다. 참다운 생활을 하려면 도반 반려 친구가 좋아야 한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저도 모르게 악행·도박·유희에 빠져들게 된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12

재가자의 現報

일확천금하려는 한탕주의가 허욕의 심보다. 이 허욕의 심보가 발동하면 앞뒤가 뒤바뀌고 정도된 무명으로 달려나간다.

무명속을 헤쳐나가려 하지만 사실 어둠속에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서 비밀한 곳에서 도박을 일삼는다. 이 군인도 경마에 손을 댔다.

경마가 공평적인 오락이라고 하지만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성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행심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어떤것이 착한 벗을 만나는 것인가. 어떤것이 정리의 벗인가. 정리의 벗을 만나면 정리의 벗을 만나게 된다. 정리의 벗을 만나면 정리의 벗을 만나게 된다. 정리의 벗을 만나면 정리의 벗을 만나게 된다.

한번만 잘하면 때부자가 된다. 그때부자가 언제나 발생이다.

우리는 오관의 진드기를 골라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욕망의 용이 올라온 물을 부스럼덩어리로 만든다. 오관을 다스리는 고약을 마음 깊이 붙여두고 번뇌의 고풍과 증기의 씨눈을 뽑아버려야 한다.

안락은 4 원칙

어느때 마담(摩訶)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재가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현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지 법으로 현세의 이익을 얻고 안락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이 법이냐하면 첫째는 능히 정근하는 것이요, 둘째는 능히 오관을 수호하는 것이요, 셋째는 착한 벗을 맺는 정리(正理)로 목숨을 기르는 것이다. 어떤것이 정근인가. 그 직업을 따라 집안 살림을 세워서 생활하는 것이다. 정치가 되거나, 농부가 되거나 목동이 되거나 언젠나 그 업을 따라 피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추위 더위 바람 기갈 병고에 잘들리지 말고 그 업에 충실하는 것이

질, 도박, 음주와 멀리 떠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아직 생각이 아니한 번뇌는 영연히 나지않게 되어 아직 나지 아니한 희락은 바로 나게되는 그러한 벗을 만나는 것이 착한 벗을 만나는 것이다라 한다. 어떤것이 정리의 벗인가. 정리의 벗을 만나면 정리의 벗을 만나게 된다. 정리의 벗을 만나면 정리의 벗을 만나게 된다.

“세존이시여, 재가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현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지 법으로 현세의 이익을 얻고 안락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이 법이냐하면 첫째는 능히 정근하는 것이요, 둘째는 능히 오관을 수호하는 것이요, 셋째는 착한 벗을 맺는 정리(正理)로 목숨을 기르는 것이다. 어떤것이 정근인가. 그 직업을 따라 집안 살림을 세워서 생활하는 것이다. 정치가 되거나, 농부가 되거나 목동이 되거나 언젠나 그 업을 따라 피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추위 더위 바람 기갈 병고에 잘들리지 말고 그 업에 충실하는 것이

안락은 4 원칙

어느때 마담(摩訶)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재가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현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월 저편의 '혼 만나기' 40년

시인은 한줄기 바람결에서도 선뜻 세월의 가없는 아득함을 뛰어넘어 천 년전의 세월을 살기도 한다. 무슨 신 통령의 조화가 아니다. 그가 세월 속으로 가고 세월이 그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때 아르바이트로 한 일이 '강진 무위사 수리보고서'의 도면을 그리는 일이었다.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열심이었다 실게 밤을 새워가며 꼼꼼히 그렸어요. 입찬선생의 마음에 들었나봐요."



산문박의 11월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장 김동현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장 김동현(金東賢·58). 그는 참으로 행복할 사람이다. 40여년을 결집 넘보지 않고 한 길로 전념해온 삶의 이력이 그렇고, 자유자재하게 시간을 건너뛰며 살아왔으니 또한 그렇다. 시간뿐만이 아니다. 달빛 맑은 날 경주 황룡사에 서있으면 그는 신라인이 된다.

그후 군복무를 마치고 중앙박물관에 취직했다. 정 문화재연구소장인 김경기선생(한림대 교수)과 함께 같은사자와 동해골 발굴에 나섰다. 문화재와의 삶을 시작한 그때가 1959년이었던

그의 직함이 알려주듯이, 뒷백년에서 길게는 1천년이 넘는 저편의 삶과 정신의 복원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이득도 없는 1천년전의 무덤을 파내는데 온갖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뭐하는 일인가.”

그러면서 박물관 경내에 있는 석탑을 가리킨다. '저 석탑은 혼자 서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에는 언제나 저 돌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장인의 영혼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살았던 선조들의 먹고사는 일상사와 꿈을 기원하고 좌절에 한숨짓는 이야기가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김동현씨가 문화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우연찮은 기회였다. "나는 건축 공학을 전공했는데, 학교 은사님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 평생

니 울화로 서른일곱해째를 맞는다. 70년에서 13년 동안은 경주에서 살았다. 불국사 천마총 황남대총 노갑지 황룡사가 그의 일터였다. 그때 큰 회의에 빠졌다. 천마총은 봉분을 봉황대라고 해서 마치 조그만 두개의 산을 이루듯 거대한 규모다. 봉토의 흩날 파내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이득도 없는 1천년전의 무덤을 파내는데 온갖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뭐하는 일인가."

조상들의 정신 복원에 희열 느껴

“저 석탑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저 돌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장인의 영혼이 맴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혼이 깃들여져야 해요.”

마리가 빠곡히 쌓여있다. 침박으로는 박물관 경내. 이곳을 시공을 넘나드는 곳이다. 그의 책상 맞은편 벽에는 무슨 종류의 문양일까 하고 궁금증을 품구는 액자가 하나 걸려있다. 치미, 재앙을 막아준다는 막새로 쓰이는 기와에 새겨진 문양이다. 13세기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수염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하나는 수염이 없다. 먼길을 떠나와 작업에 참여했던 기와공의 부모생각을 담은 것이라고 김소장은 풀이한다.

“손으로 밟았는데 거기에 엄지손가락 지문이 묻어있어요. 고려에 살았던 이룸모를 기와공의 체온은 물론 얼굴 생김새며 눈빛까지 아련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손으로 밟았는데 거기에 엄지손가락 지문이 묻어있어요. 고려에 살았던 이룸모를 기와공의 체온은 물론 얼굴 생김새며 눈빛까지 아련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桐裏山 泰安寺 預修齋 法會案內

새봄을 맞이하여 불자님 여러분, 언제나 어려움이 연속하는 인생고해(苦海)에서 사문고생이 많으실줄 염려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지없는 고난은 모두 한결같이 과거에 우리 스스로의 무명(無明)과 그에 따른 그릇된 행위 곧 공업(共業)의 결과이며, 현재 우리들의 생각과 행위가 또한 미래와 내세(來世)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인과 필연(因果必然)한 우주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무상(無常)한 세월이 너무나 신속하여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합일없이 업장(業障)에 끌려 험난하고 망망한 저승길에 방황하게 되오니 어찌 비참한 회한(悔恨)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달이 든 올해는 모든 불사(佛事)공덕이 각별이 수승하다는 전통에 따라 이번엔 저 회한들이 「왕생정도경」의 가르침대로 봉행하게 되는 「예수재」는 앞으로 닥쳐오는 행복과 내세의 극락을 기약하기 위하여 미리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쌓는 절실하고도 희유(稀有)한 공덕의 범회입니다.

그래서 오는 음력 정월 7일(양력 2월 6일)에 입재(入齋)하여 49일 동안 기도 정진하고 음력 2월 26일(양력 3월 26일)에 회향법회를 전통적인 의식을 갖추어 여법히 봉행하고자 하오니 저희들과 인연이 같은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수희(隨喜)동참하시어 영생복락의 불연을 한껏 빛내 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증명 석 청 화 (釋 淸華)
 - 주 지 석 도 일 (釋 道 日)
- 안 내**
- 49일 지장기도 선행 예수재
 - 기도 입재: 1995년 2월 6일(음 1월 7일) 사시
 - 기도 회향및 예수재: 1995년 3월 26일(음 2월 26일) 오전 11시
 - 예수재 동참금: 1인당 십만원
 - 조상천도: 영가 1위당 오천원
- ※ 동참신청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신청도 받습니다.)
※ 당일교통편: 극성역 및 극성 종합 버스 터미널에 태안사행 봉고차 대기합니다.

태안사 전화안내

종무소: ☎0688)62-4906
계무실: ☎0688)63-4615
원주실: ☎0688)63-1627
팩 스: ☎0688)63-7811

태안사 온라인안내

우체국	502468-0010113
농협	623-01-032931
국민은행	555-01-0331-233
예금주	태안사

전남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大韓佛敎 曹溪宗 桐裏山 泰安寺

불기 2539년 1월 일